

기고



김덕형 장성경찰서 정보보안과

겨울철 노면 위 복병 블랙아이스 대처방법

요즘 겨울을 코앞에 두고 아침 저녁으로 영상과 영하를 내리 오르는 일교차가 심하다.

첫눈이 내린다는 소식이 지나면서 일부 지역에는 첫눈 소식까지 들려오고 있다.

자동차 운전자에게 한과와 폭설, 빙판길 등 운전하기 고약한 시련의 계절인 겨울을 앞두고 오늘은 도로위의 복병 블랙아이스 일명 도로위 살얼음에 대해 이야기 해볼까 한다.

자칫 생소할수 있는 블랙아이스란 새벽 또는 밤사이 기온이 급강

하 하면서 녹았던 눈이나 빗방울이 아스팔트 노면위에 그대로 얼어붙어 얇은 빙판이 되는 것으로 아스팔트의 검은색에 가려 얼음처럼 보이지 않는 현상을 말한다. 일각에서는 이를 도로위 암살자라거나 살(殺)얼음이라 불리기도 한다.

물론 겨울철에는 대부분의 운전자들이 눈길이나 빙판길에 더욱 주의 운전을 하게 되지만 문제는 이처럼 블랙아이스 구간이 단순히 도로가 조금 젖은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육안식별이 어려운 살얼음

이 끼는 현상을 구별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또한 블랙 아이스 현상은 염화칼슘이 눈과 결합하면 도로위에 남아있던 수분이 도로 표면을 미끄럽게 하는 슬라이딩 효과가 발생하여 더욱 찾아진다고 한다.

때문에 운전자 입장에서 노면 위 살얼음이 얇고 투명한 특성 탓에 눈에 잘 띄지 않아 사전에 대비하기 어렵다보니 블랙 아이스 현상 발생지점을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운행할 경우 자칫 대형 사고로 연결될 가능성도 많다.

도로 위 살얼음이 낄 경우 특히 제동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모 공단의 발표자료에 따르면 빙판길에서 시속 50km 주행 중 브레이크를 밟아 정지할때까지의 거리가 평상시 마른 노면에 비해 승용차는 약4.4배, 대형버스는 7.7배 길어진다고 하니 주의에 주의를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또한 빙판길 위에서는 평소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제동거리가 필요하다고 한다.

아무튼 겨울철 빙판사고의 상당

부분은 잘못된 운전습관과 사소한 방심에서 비롯되는것인 만큼 눈이나 빗길 운행이 잦은 겨울철에는 운행 전 해당지역에 대한 기상상태와 교통상황을 먼저 확인해둘 필요가 있고 블랙아이스 발생이 잦은 산모퉁이나 다리위, 해안도로, 그늘진 곡선도로 등 커브길이나 교량과 응달지점 등 주변 기후 변화에 민감한 지역을 운행할 경우 급제동이나 급가속은 절대 금물이다.

이러한 지역은 아예 평상시 보다 20~50%정도 감속운행하는 편이 좋다.

급작스런 제동장치 조작은 차량을 더욱 쉽게 미끄러지게 하여 스펀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만약 급정지를 해야할 경우라면 풋 브레이크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으나 브레이크를 나누어서 밟는 펄핑 브레이크를 사용하거나 한 단계 낮은 저단 엔진브레이크로 변경하는 등 조금이라도 미끄러짐

을 줄이는 안전한 방법으로 블랙아이스 발생 지점을 통과하는 지혜가 필요하듯 할 것이다.

겨울철 빗길 운행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다.

겨울철 빗길에서의 제동거리는 평소보다 약40~60%늘어나기 때문에 비가 내린다면 평소보다 20%이상 감속 운행을 하는 것이 안전하다.

빗길 야간 운행의 경우에는 노면 반사 및 수막현상으로 인한 미끄러짐 사고 위험도 높기 때문에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겨울철 운행에 있어 특별한 노하우란 있을수 없다.

평소 자신의 운전실력을 맹신하지 말고 항상 차량간 충분한 안전 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는 습관을 기르는 한편 안전운전 요령을 숙지하는 등 안전한 겨울철 운행을 바란다.

겨울철에는 안전운행의 정답은 없다는 점을 기억하자.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전기장판의 두 얼굴

아침, 저녁으로 제법 쌀쌀 하지 만 보일러를 틀기에는 너무 이른 감이 있는 요즘 같은 시기에 각 가정에서는 전기장판을 많이 사용한다.

추운 날씨에 전기장판은 우리의 동반자가 되지만 다른 한편에 어두운 면을 가지고 있다.

겨울철 화재 원인 1위의 자리 까지 오르내리는 전기장판, 안심 하고 사용하다 자칫 화재가 발생 하면 화재 및 그로인한 화상 피해도 크기 때문에 사용상 주의가 요구된다.

전기장판 화재는 장판에서 사용되는 열선들이 손상이 되어 혹

은 장시간 사용으로 과열이 되어 주로 화재가 발생한다.

그렇다면 전기장판 화재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첫째, 전기장판을 구입할 때는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확인 해야 한다.

시중에 검증되지 않은 너무나 많은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고 화재보험사와 제휴되지 않은 제품들도 있어, 제품 자체 결함에 의해 화재가 발생하거나 그에 따른 보상도 받지 못할 수 있다.

둘째, 인화성이 높은 라텍스 재질의 매트리스나 두꺼운 이불과 함께 사용하지 않는다.

라텍스 재질은 열이 쉽게 축적되고 쉽게 발화하는 성질이 있어 같이 사용하면 화재 발생 및 확대의 원인이 된다.

셋째, 사용하지 않을 때, 외출 시에는 반드시 전원을 꺼 놓아야 한다.

주변에 사람이 있을 때 화재가 발생하면 초기대응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는 건물 전체로 화재가 확대 될 수 있게 때문이다.

넷째, 전기장판 등 열선을 가진 전기제품을 보관 시에는 구겨서 보관하지 말아야 한다.

보관이 잘못되어 열선이 상하게 되면 단락, 합선 등으로 화재가 발생 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눈앞에서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초기대응으로 화재확대를 막을 수 있다.

성급히 물로 불을 끄려고 하면 감전의 위험과 수손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기차단기를 내리고 고무장갑을 낀 다음 이불이나 옷가지, 소화기 등을 이용하여 침착하게 대응하도록 한다.

겨울을 즐겁게 맞이하고 따뜻하게 보내는 첫걸음은 전기제품 구매 및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다.

당장 추위를 피하는 것도 중요 하지만 오랜 시간 따뜻함을 유지 하기 위해서는 안전 수칙을 지키고 생활화하는 것에 더욱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강명원/현장지휘단장소방령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Table with 2 columns: 생활정보전화 and 긴급전화. Lists various emergency and service numbers.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광역시 동구 남문로 753번길 7

회장·발행인·편집인 김평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선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장평 13길 19 (061) 727-3123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팩스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무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